

## 방언의 분포와 변화에 대한 문화적 연구 방법 모색

- 문화방언학(Cultural Dialectology) 설정을 위한 시론 -

김 덕 호\*

- I. 머리말
- II. 언어와 문화의 통합연구 가능성
- III. 문화방언학의 설정을 위한 전제 요건
- IV. 문화방언학의 연구 방법에 대하여
- V. 맺음말

### 국문초록

방언학 연구에서 방언 분포와 변화를 분석하는 일은 방언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하지만 과거 많은 연구에서 주로 언어의 사적 변천 과정과 관련해서 살펴보려고 한 것은 연구 목표를 너무 좁게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방언의 분포와 변화는 그 배경에 존재하는 다양한 지리적 상황과 사회적 배경 및 문화적 정보가 얹혀 있는 복잡한 근거와 이유가 있다고 인식해야만 할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방언학 분야의 연구가 언어의 사적 변천을 해명하기 위한 연구로만 한정

---

\*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idhkim@knu.ac.kr

하기에는 아쉬운 점이 많다. 그런 까닭에 방언학 연구가 특정의 목적에 초점을 두고 있는 보조 학문적인 분야가 아니라 언어와 지리 공간의 관계성, 언어와 사회적인 현상과의 관련성, 언어와 문화적인 기반과의 연관성을 고려하면서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인간의 존재 의미를 더욱 심층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 연구 분야임을 내세울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관점을 열어두고 다양한 연구 방법론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만 방언학 연구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그러한 연구 영역을 확장할 가능성을 타진해보자는 노력의 일환으로 문화방언학 분야의 설정을 위해 필요한 전제와 기반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방언학 연구에서 적어도 문화와의 관련성을 고려할 수 있는 업적을 분석해보면서 그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 주제어

언어문화, 문화방언, 방언변화, 방언분포, 문화방언학

## I. 머리말

방언의 분포와 변화는 지역어 간 접촉의 양상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지역어의 접촉은 지리언어학에서 말하는 개신파의 이동을 전제로 이루어지며 방언의 변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보면 어떤 지역에서 사용어의 점진적인 변화는 공간적인 방언 분포의 변화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지역어의 변화를 지리적인 분포의 차이로만 보는 것에서 지역어 연구가 성립된다는 것이 전통 방언학의 입장이었다. 이러한 입장만을 고려한다면 지역어의 복잡한 분포와 변화의 이유를 심층적으로 분석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특정 방언의 분포와 변화의 문제는 지리적인 측면만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조건을 고려하여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인류학자이자 언어학자인 에드워드 사피어(E. Sapir 1921: 221)는 언어의 배경에는 반드시 문화가 내재되어 있으므로, 언어는 문화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고 했다. 문화란 그 사회에서 오랫동안 전래되어 오는 관습과 신념의 총체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들의 언어생활을 결정한다고 했다. 블룸필드(Bloomfield 1933: 46-47)는 사회 또는 개인 간에 언어의 친소관계는 그 집단 또는 개인 간에 주고받는 문화적인 소통과 사회적 관계의 밀도(density of communication)에 비례한다고 밝힌 바가 있다. 팔머(L.R. Palmer 1936: 151)는 언어와 문화의 역사는 상호 협조하고 보완하게 되어 있고, 서로서로 관계를 맺고 계발되면서 진화한다고 말했다. 이들의 지적은 언어와 사회, 문화의 관계가 밀접하며, 연관된 영역도 매우 광범위하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대전제는 언어의 형식이든지 내재된 의미이든지 생성된 경위나 변화의 과정이 사회적, 문화적 배경의 추이 과정과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사회 간의 친소관계의 성립이 언어의 접촉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 현상과 문화 현상의 교섭에도 동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진술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어떤 지역의 언어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언어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지리적, 사회

적, 문화적 연관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김덕호(2017: 2)는 언어 분포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통상 세 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첫째, 언어 내적 요인으로 언어 체계의 내적 발달에서 비롯된 것이다. 둘째, 언어 외적 요인으로 다양한 변이형들의 접촉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셋째, 언어와 무관한 요인으로 지리적, 사회적, 문화적 조건 등이 언어의 분포와 변화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방언의 분포와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어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뿐만 아니라 언어와 무관한 요인까지 고려해야 함을 전제로 이러한 논의를 시작한다. 김덕호(2017)의 지리언어학적 연구와 김덕호(2018)의 사회방언학적 연구에 이어서 이번에는 방언의 분포와 변화를 분석하는데 문화적 연구 방법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탐색해 보는 것이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이다. 또한 가칭 문화방언학이라는 연구 영역의 설정을 위한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다.

## II. 언어와 문화의 통합연구 가능성

19세기 초 독일의 언어철학자인 훔볼트(W.V.Humboldt)는 『인류언어 구조의 차이 및 인류 정신발전에 대한 영향을 논함(1830-1835)』에서 처음으로 인간 정신과 언어 구조의 관련성에 대해 말하면서, 민족어마다 제각기 특유한 세계관(문화적 관습-필자 주)이 내재되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이성준 1998: 465). 이러한 훔볼트의 견해는 언어의 실존 방식이 인간들의 문화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암시한 것이다. 20세기 초 미국의 인류학자인 보아스(F. Boas)가 사피어(E. Sapir)와 워프(B.L. Whorf)와 함께 공동 작업으로 아메리카 인디언의 문화와 언어를 조사하면서 인류언어학(Anthropological Linguistics)을 탄생시켰다. 이를 기점으로 언어와 문화는 본격적으로 연결되면서 학문적 분야로 연구되기 시작했다.

성기철(2004: 111, 2005: 3)에서 언어는 문화의 소산으로 문화의 한 요소이지만, 언어는 문화의 중심에서 문화를 이끌어 가는 동력이라고 했다. 언어와 문화는 따로 존재하기보다는 복합적인 실재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문화가 없는 언어를 생각할 수 없듯이 언어가 없는 문화도 생각할 수 없다고 했다. 곧 이러한 주장은 서로 긴밀히 결속하고 있어서 나눌 수 없는 상관성을 가진다는 점을 제시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자면 ‘언어문화’라는 용어로 함께 사용할 수 있음을 주장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리사거(K. Risager)(2006: 115)는 이러한 사고를 반영하여 ‘언문화(languaculture)’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언어와 문화가 분리될 수 없음을 밝히기도 했다.<sup>1)</sup>

인류학에는 傳播(diffusion)의 개념과 함께 文化圈(Kultur-kreise)<sup>2)</sup> 내지 文化領域(cultural area)이라는 개념이 있다. 어떤 문화 양식이 문화중심지에서 발생하여 전파해 나간 범위를 가리키는 개념으로서 지역 간 문화의 차이를 설명하는 방편으로 쓰인다. 이 개념은 방언권의 해석에도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예들 들면, 가옥 구조를 조사하여 일자형 구조를 가지는 일자형 가옥구조권과 겹집형 가옥 구조를 가지는 겹집형 가옥구조권을 설정하고, 또 음식문화를 조사하여 갓김치를 담가 먹는 갓김치권과 지를 김치로 담가 먹는 지김치권이나 각 지역 풍습의 차이에 의한 문화권 지도 또는 민속지도를 만든다면 이를 방언지도와 비교하여 방언의 전파와 문화의 교류 관계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민속학이나 인류학의 문화권에 관한 개념을 방언학 연구에

1) 카렌 리사거(Karen Risager 2006: 115)는 언어인류학자인 마이클 아가르에게서 빌려온 용어인 '언문화'의 개념을 소개하고, 언어와 문화의 연결고리를 탐구하기 위해 더욱 정교하게 이론을 정립한다.

2) 文化圈(Kulturkreise)에 대한 구상은 19세기 후반에 F.라첼이 아프리카와 멜라네시아의 활을 비교 연구하면서 비롯되었다. 이후 L.V.프로베니우스가 그 개념을 분명히 하였고, 다시 F.그레브너 등이 방법론적으로 정리하였다. 형태적 유사성(질적 기준)이 양적으로 충족되는 경우(양적 기준), 둘 이상의 문화지역 사이에 傳播나 共通起源이라는 공간적인 역사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하는 학설이다(두산백과-<https://www.dopedia.co.kr/>).

도 도입할 수 있다고 본다. 전반적으로 언어를 언어외적인 현상과 관련시켜 넓은 시야에서 파악해야 할 경우가 많은데, 이때 민속학이나 인류학의 연구 성과를 도입하면 심층 분석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언어문화란 용어에 대해 고영근(1996: 6)은 언어와 문화 두 영역을 합한 말로 ‘언어문화’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개념에 대한 규정 없이 이 용어를 사용한 경우이다. 크람쉬(C. Kramsch 1996)가 ‘Language and Culture’라고 사용했고, 전정례(1999)의 ‘언어와 문화’가 글자 그대로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태평무(2000)에 의하면 중국은 ‘文化言語’라는 용어로 연구가 되어 왔다.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에서 영문명으로 사용한 ‘Culture and Language’는 궁극적으로 ‘언어문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표현은 궁극적으로 언어와 문화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고 밝히고 있다(성기철 2004: 132).

고영근(1969: 54)은 언어 형식이란 인습적인 기호이고 자료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문화형식과 평행이 되기 때문에 언어인류학적인 분야에 적용되면 상호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이러한 지적은 언어를 연구하는 방법에 문화적 관점이 적용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그렇다면 언어는 문화를 직접적으로 실현한 것이고, 또한 문화는 언어를 통해 그 자체의 특별한 내용을 포함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언어는 언어문화<sup>3)</sup>의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김덕호 2012: 288).

---

3) 엄밀한 의미에서 언어문화와 문화언어는 차이가 난다. 즉 언어문화는 구성원의 언어 속에 투영된 문화적 양상을 말하고, 문화언어는 구성원의 문화 속에 투영된 언어적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두 용어를 엄격하게 구별하지 않기로 한다. 왜냐하면 본 연구의 출발점은 언어와 문화가 관련성이 있다는 점이 전제이므로 고영근(1969: 55)의 주장처럼 언어와 문화의 관련성에 대해 상호 평행적 연구를 추구하고자 한다. 실제로 언어와 문화의 관련성을 연구하는 분야가 중국은 문화언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고, 일본은 언어문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다루고 있는 내용은 거의 상호 평행적 연구이다.

### III. 문화방언학의 설정을 위한 전제 요건

문화는 인간의 사고방식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또한 문화만큼이나 인간의 사고방식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언어이다. 이처럼 인간의 사고와 밀접하게 연결되는 언어는 정교하게 상징화(symbolization)되어 있는 문화적 산물일 수밖에 없다. 언어는 문화를 담아내는 그릇이면서 동시에 문화를 표출하는 도구이기도 하다. 언어는 공식적으로 문화를 전파하고, 또한 통시적으로 문화를 전승하는 역할도 한다. 그런데 언어와 문화의 밀접한 연관성에도 불구하고 20세기가 되면서 언어학 연구는 실증적, 과학적 방법으로만 치우치게 되고 언어의 문화 관련성에 대한 관심은 점차 줄어들었다. 하지만 21세기가 되면서 언어와 문화의 관련성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으며, 점차 이 분야의 연구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융합학문적 발전을 위해서라도 언어와 문화의 관련성을 연구하는 노력이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관심은 중국의 경우 일찍이 시작되어서 1950년대에 라상배(罗常培 1950)는 언어 연구에서 문화를 함께 연구하자는 취지에서 ‘문화언어학’이라는 용어의 설정을 언급했다. 1985년에 유여걸·주진학(游汝傑·周振鶴 1985)에서 ‘문화언어학’이라는 명칭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후 장바오유(姜寶有 2004: 39)는 언어학의 연구 대상이 언어이고 문화학의 연구 대상이 문화라고 한다면 문화언어학은 언어와 문화의 관계를 연구하는 과학으로서 언어학과 문화학이 접목된 언어학의 한 분과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96년에 마키노 세이이치(牧野成一 1996)가 ‘言語文化學’이라는 학문영역을 구축하면서 문화를 토대로 한 언어의 연구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처럼 문화와 언어의 융합을 전제로 한 연구 분야의 설정을 고려하면 문화학과 방언학이 융합된 분야인 문화방언학의 설정도 가능하다고 본다.

## 1. 연구 영역의 설정

고영근(1969: 55)은 방언 구획에 있어서 지리적으로 연결된 지역에서의 언어접촉과 문화접촉에 대한 상호 평행적 연구를 언급하면서 언어 외적인 고려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그러므로 인류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언어 접촉은 문화 접촉의 일면이며 언어 간섭은 문화 확산과 문화 이식의 일면으로 간주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언어학자의 입장은 문화의 확산이나 전이 과정에서 언어의 접촉을 고려해야 할 전제라고 볼 수 있다. 즉 언어학자가 언어 변화에 대해 연구하려면 언어 접촉에 대해 분석해야 하고, 이러한 언어 접촉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문화의 확산과 전이를 탐색해야 한다고 보았다.

페트로스카(E, Petroska 1998)는 ‘문화적 방언(Cultural Dialect)’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지역 방언의 변형에 문화 요소가 반영됨을 보여주고 있는데, 북마케도니아 공화국의 수도 스코피에(Skopje)에서 젊은 세대의 마케도니아 문화적 방언을 제시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문화적 방언은 지역적 변형을 가진 구어체 표준 통용어로 이해하고 있다.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문화적 방언은 둘 다 표준 마케도니아어의 구어적 변종이고, 모두 표준적인 마케도니아어를 기초로 하고 있으며 스코피에 지역 방언의 일부 특징을 포함하고 있다. 스코피에의 옛 방언은 마케도니아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스코피에 주변 여러 지역 방언의 영향을 받았다. 젊은 세대의 문화적 방언은 마케도니아 표준 통용어(위세어형)로 교육받은 화자들이 사용하는 마케도니아어의 자발적인 내적 발달의 결과물로 보고 있다.

코야마 와타루(小山渉 Koyama Wataru 2001)는 실용 중심의 방언과 방언론(dialectology)에 대한 사회적 혹은 문화적 이론(즉, 방언에 관한 사회 문화적 지식이나 '이데올로기')을 발전시키려고 시도한다. 특히 교토 지역어가 실용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떻게 개체화 되었는지 분석하고 있다. 또한 현지 방언 연구자가 어떤 문화적 카테고리의 측면에서 이 방언을 이데올로기적으로 개체화한 것인가를 살펴보고 있다. 거시 사회적

현상의 언어 구조와 사회 언어학적 패턴이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강우원(2008)은 경남 방언에서 청중과의 친밀감을 표현하는 부름말의 존재를 경남 방언의 문화적 특징으로 보고 있다. 경남 방언에서 부름말 중 '어이, 바라, 야야, 아요, 보소'의 유추와 유사성 기능을 명확히 하려는 문화적 위상차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시양푸(孔祥馥 2011)은 칭하이 민족 문화의 집약체로서의 칭하이 방언을 들면서 다양한 칭하이 소속 민족의 역사적 거울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칭하이 방언의 분석을 통해 민족 집단이 만든 다양한 문화적 의미를 연구하고자 했고, 이를 통해 방언에 녹아있는 문화적 중요성을 이해하고자 했다.

우량(吳亮 2012)은 무형 문화유산으로서 허난 방언은 문화, 민속 관습 및 언어학에 특별한 가치가 있다고 하면서 최근 소멸되고 있는 허난 방언을 보전하기 위한 능동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언 간의 변화는 인접지역의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서 발생한다. 끊임 없이 이루어지는 인접지역 사람들 간의 만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방언의 변화는 나타난다. 그러므로 방언 분포의 변화는 방언의 접촉이 발단이 되고, 여기에 시간적인 변수가 작용하면서 그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다. 즉 방언 분포의 변화는 지속적인 방언 접촉이 발단이 되어 이루어지는 공간적인 전파의 모습으로 점진적으로 나타난 결과인데, 이러한 논리의 사고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리적으로 개신파가 점진적으로 이동한다는 논리이다. 개신형인 방언 형식은 주로 도시지역에서 태어나 그 주변으로 물결이 퍼지듯이 확장된다. 다음은 개신형의 사회적 내지는 문화적 수용의 과정이다. 즉 도시의 주변 지역은 도시지역에서 생겨난 개신형을 수용하려는 태도에 따라 전파가 이루어진다.

사회언어학자인 라보브(Labov)가 주장한 위세형(prestige)의 수용에 대한 심리적 기제는 우위에 있는 문화에 대한 선호도에 따라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말하자면 방언의 분포와 변화에 영향을 끼친 원인은 바

로 문화적 요인에 의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방언 분포와 변화를 더욱 심층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선택 조건을 중요한 변수로 보고 이를 전제로 하여 분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2. 연구 방법론의 도입

사회과학 분야에서 연구를 위해 활용한 연구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20세기 실증주의 기조를 이루기 위해 적용한 양적 연구 방법이 있고, 양적 연구와 문헌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적용한 질적 연구 방법과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병행하는 혼합적 연구 방법이 있다(김덕호 2014: 3). 그러므로 언어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과정으로 사회과학 분야에서 활용한 3가지 연구 방법의 적용을 제안한다.

지금까지 언어학에서는 언어의 과학적 연구를 위해 대부분 양적 연구법을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언어 현상의 심층 연구를 위해 문화의 잣대를 활용하면서 질적 연구법을 도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질적 연구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언어 현상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문화를 분석하여 그 언어 현상의 심층적 부분을 탐구한다는 목적을 고려하면 필연적인 과정일 수 있다. 인류학의 현장 연구는 참여관찰(participant observation)을 통한 질적 연구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현지 조사 방법을 방언학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참여 관찰(participant observation)과 같은 연구 방법은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조사법을 고려하여 현지 조사 질문지나 질문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방언학 분야의 현지 조사 질문지와 질문 방법은 지역을 전제로 한 연역적 연구 방법이었고, 양적 연구법을 활용하였다. 방언학 분야에서 참여 관찰을 통한 조사 방법을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가 국립국어원의 ‘민족생활어 조사’이다. 이 연구는 개방형 질문지(비정형화 질문지)를 사용하여 현장 상황에 맞추어 참여관

찰, 대화, 심층면접, 생애구술 조사와 같은 질적 연구법을 활용한 귀납적인 연구 방법이다(김덕호 2014: 24-26).<sup>4)</sup>

#### IV. 문화방언학의 연구 방법에 대하여

언어는 문화를 담고 있는 그릇이면서 동시에 문화를 드러내는 도구이기도 하다(김덕호 2014: 30). 방언 분포와 변화 과정에 문화가 작용할 개연성이 높다고 본다면, 이를 분석하기 위해 양적 연구법과 질적 연구법을 함께 적용한다는 것은 문화 현상을 기준으로 하여 언어를 탐구하겠다는 목적을 고려하면 당연한 연구 과정이다.

문화방언학(Cultural Dialectology)이란 방언학의 연구 분야에서 방언 분포나 변화에 대해 문화적 속성이나 문화인류학적 관점을 분석 기준으로 삼는 분야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분야는 확장적이고 통섭학문적인 연구의 성격을 지닌다. 즉 전통적 기층 문화권이나 지역민의 문화적 판단(문화 의식, 문화 지각, 문화 직관)을 근거로 하여 방언 분포나 변화의 양상을 분석할 수 있다. 사회방언학의 양적 연구법과 아울러 문화론의 질적 연구법을 활용하는 분야이다. 기존의 방언학 연구에서 방언의식과 표준어화 및 신방언 분석이나 더욱 확장된 기층문화권과의 대조 분석과 방언 분포와 변화의 문화적 접촉 과정 분석 등이 세부 연구 분야로 설정될 수 있다.

문화방언학적 분석을 위해 가장 적합한 방법도 질적 연구법이라고 본다. 특히 질적 연구에서 방언 분포의 분석을 위해 문화와 결부하여 수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공통어화의 분석, 기층문화권 대조 분석, 방언 분포 변화의 문화적 접촉 분석 등을 제안한다. 그리고 현장 조사도 질적 연구를 위한 심층적 현지 조사 방법, 민족지학적 조사 방법이 필요하다.

---

4) 국립국어원의 ‘지역어 조사 질문지(2006)’ 중 ‘제1편 구술발화’ 부분이 개방형 질문지의 일종이다. 다만 조사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다소 구조화시킨 질문지로 문항이 구성되어 있다. 앞으로 질적 연구를 위해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자료이다.

문화를 구분하는 방식의 차이로 문화 연구는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성기철(2004: 137)은 문화를 크게 정신문화와 물질문화로 구분할 수 있다고 했는데, 물질문화가 일부분에서 인간의 외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라면, 정신문화는 인간의 내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후자오량(胡兆量 2005: 25-26)은 문화의 차원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정신문화(의식 문화, 관념문화)는 심리, 도덕 등과 관련된 차원이고, 둘째, 제도문화는 사회 형태와 사회 성질을 반영하는 제도 등과 관련된 차원이고, 셋째, 물질문화는 의식문화가 반영되어 구체적으로 드러난 물질 형태의 차원이라고 구분하고 있다. 마키노 세이이치(牧野成一 1996: 17-28)는 ‘言語文化學’이라는 분야를 규정하면서 ‘안과 밖의 언어문화학’이라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그는 기본적인 공간 개념을 통하여 언어와 문화의 연관성을 규명하고자 했다. 즉 언어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지 않고 언어를 둘러싸고 있는 협의와 광의의 전제와 함수로서 언어 현상을 탐구하려고 했다. 안의 언어문화학은 협의의 전제로 당연히 문맥과 발화시 화용론적 상황까지 포함되지만, 밖의 언어문화학은 광의의 전제로 문화뿐만 아니라 생태학적인 상황까지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을 고려하면 문화방언학의 경우 미시적 연구 방안과 거시적 연구 방안으로 구분하여 연구할 수 있다.<sup>5)</sup> 문화방언학에서 미시적 연구는 어떤 문화적 요인이나 신념(이데올로기)이 화자들의 방언사용 여부에 끼치는 영향 관계에 관심이 있다. 거시적 연구는 공동체 내에서 특정 방언의 사용이 문화적 지표나 맥락과의 관련성에 관심이 있다.

5) 강현석 외(2014: 29-30)에서 사회언어학 분야를 거시 사회언어학과 미시 사회언어학으로 구분하고 있다. 미시 사회언어학은 사회 구조와 사회적 요인이 언중의 언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다양한 어형과 언어 사용 양상이 사회 계층, 성, 나이, 민족성 같은 사회적 요인과 어떤 상관관계를 보이는가에 관심을 갖고 있다. 거시 사회언어학은 언어 공동체내에서 언어 혹은 방언의 변종들의 사용 영역과 언어 접촉 및 화자들이 어떠한 사회적, 상황적 맥락에서 특정 언어 변종을 사용하는가에 관심을 두고 연구하는 분야로 보고 있다. 이론적으로 진정한 기술적이고 설명적인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두 분야의 연구가 모두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1. 미시적 연구 방안

인간의 심리와 사고방식의 형성에 주로 작용하는 것은 문화이다. 또한 문화만큼이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이 바로 언어이다. 이와 같이 인간의 심리나 사고와 밀접하게 연관성이 있는 언어는 고도의 상징화(symbolization)된 결정체이면서 최고의 문화적인 산물이다. 그런데 언어의 위세형(prestige form)을 선택하는 심리는 해당 문화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경우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시적 연구 방안은 언어의 내적인 선택과 맥락을 전제로 연구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영역의 경우는 언어 이데올로기에 따른 방언 수용 여부와 공통어화(표준어화)로의 변화 분석 및 신방언 발생의 조건 및 변화 분석을 미시적 연구 방안으로 설정하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 1) 언어 이데올로기에 따른 방언의 수용 여부 분석

1970년대 이후 인류학의 관점에서 문화와 언어의 문제에 대해 언어 이데올로기라는 개념으로 대두되었다. 사람들이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맥락에서 언어 관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가치를 부여하면서 차별화하는지를 해명하기 위해 언어학 연구자들은 이 용어를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실버스틴(Silverstein 1979: 193)에 따르면 언어 이데올로기는 ‘인식된 언어 구조 및 사용의 합리화 또는 정당화로서 사용자가 표현한 언어에 대한 모든 신념’이라고 했다. 따라서 언어 이데올로기를 연구한다면 화자의 사회적 위치와 대화 형식 간의 매개 관계를 조사할 수 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언어(방언)의 수용 여부를 분석하는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는 기본적인 틀이 되기도 한다(월러드 외 Woolard etc 1998: 3). 그러한 사회적 측면을 고려할 때 언어 이데올로기는 사회적 언어의 관계 설정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는 문화적 체계이며, 또한 언어의 속성과 형식의 수용 여부를 결정짓는 문화적 동기와 관련 있다. 말하자면 언어 이데올로기에 의해 사람들은 자신의 사용어(표준어 혹은 방

언)에 대한 문화적 정체성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언어 이데올로기는 사용자 선택과 관련이 있는데, 그런 선택의 심리를 따져보면 자신과 관계있는 언어(방언)에 대한 가치 부여와 연관이 있다. 친밀한 언어(방언) 사용자에게 대한 감정은 사용자 가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달려있다. 만일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우호적일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는 배타적일 것이다. 같은 논리로 방언의 개신파에 대해 언어적 가치가 있다고 본다면 우호적이면서 앞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런 개신어형으로 방언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기존의 방언에 대해 우호적인 언어 이데올로기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문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방언 보전을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언어의 가치를 부여하는 점이 선호 방언을 수용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노우에 후미오(2015)는 언어의 가치를 지적 가치와 정적 가치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언어의 가치는 모든 언어에 있으며, 언어의 권력 과도 관련이 있다. 지적 가치는 언어의 시장 가치와 관련이 있다. 정적 가치는 언어에 대해 가지는 애착심, 충성심과 연관되어 있으며 언어에 대한 심리적 분야 곧 문화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정적 가치는 절대적 가치와 상대적 가치로 구분할 수 있다. 절대적 정적 가치는 태생적 언어 즉 모어 혹은 텃말과 관련이 있고, 상대적 정적 가치는 필요성에 의해 모어 혹은 텃말 습득 후에 외국어 혹은 다른 지역어를 선택할 때 가지게 되는 가치이다. 언어 이데올로기는 선호 언어(방언)에 대해 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언어의 정적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은 곧 문화 정체성(identity)을 가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김덕호(2015: 72-75)는 방언 보전을 묻는 설문에서 2010년 33.1%에서 2014년 46.3%로 방언에 대한 정적(정서적) 가치의 증가를 확인하고 있다.<sup>6)</sup> 이 수치는 27.6%에서 29.9%로 확대된 지적(언어적) 가치보다는

6) 구글 독스를 활용하여 전국적으로 10대에서 60대 이상까지 1,46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방언의 경우 정적 가치가 훨씬 많이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즉 방언은 언어 이데올로기와 이에 비롯된 정체성에 상대적으로 더 큰 작용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카렌 리사거(K. Risagar, 2006)는 언어와 문화에 대한 몇 가지 접근 방법을 소개한다. 특히 마이클 아가르(Michael Agar)가 말한 ‘언문화(languaculture)’란 용어이다.<sup>7)</sup> 이 용어는 언어와 문화가 분리될 수 없다는 근거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언어와 문화의 밀접한 관계를 설명하려는 관점에는 정체성(identity)이 있다. 언어와 문화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한 개인 혹은 집단이 어떤 언어를 사용할 때 그러한 언어 사용은 특정한 문화가 역사적으로 형성해 온 특정한 관습 체계에 따라 자신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본다는 것이다. 화자는 항상 언어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고 있으며 그것은 특정한 문화적 유형으로 나타나게 된다. 물론 이러한 언어적 혹은 담론적 실천이 문화의 일부를 다시 재창조할 수도 있다.

통상 언어 이데올로기에 대해 방언 태도와 변화의 연관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방언 태도와 변화를 문화적 정체성과 관련시켜서 분석을 시도한 연구 결과는 그렇게 많지 않다. Kang Yoojin(강유진 2016)은 언어 태도와 화자의 문화적 정체성이 성인의 제2 방언 습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바 있다. 특히 서울에서 경북으로 이주해 온 화자들이 경북 방언과의 접촉 상황에서 음운 및 초분절음소의 수렴 또는 발산에 대하여 서울 출신 화자의 방언 수용과 태도를 조사했다. 이 논문은 주로 경상 방언과 서울 방언에 대한 화자의 방언 태도와 경상도 및 서울과의 정체성이 화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방언을 습득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연구에서 경상 어휘 악센트의 실현과 참가자의 언어 태도 및 지역에 대한 정체성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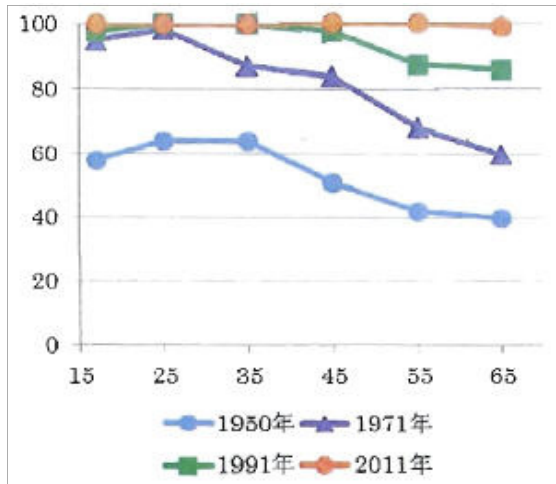
---

7) Michael Agar(1996), Language Shock: Understanding The Culture Of Conversation, pp73-88.

## 2) 공통어화(표준어화)로의 변화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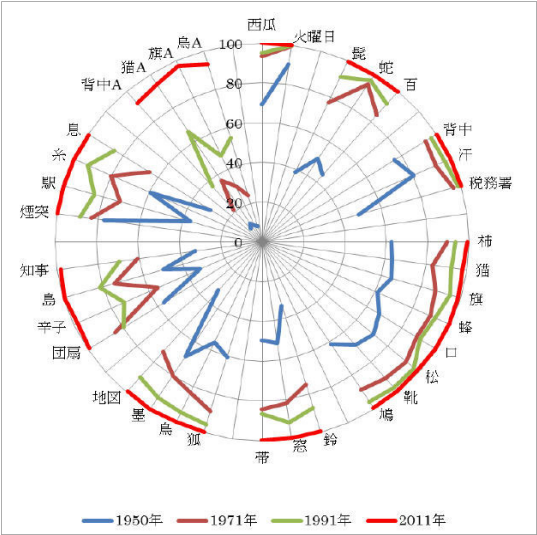
방언 확산 이론을 보면 문화중심지에서 放射를 상정하여 그 중심지에 변화의 시초가 발생하고 그 변화의 개신이 점차 주변부로 이동한다고 이해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생각해보면 개신파가 방사되는 출발점은 핵방언지역이 되면서 주도적 문화의 중심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문화의 중심지에서 선택하는 특별한 언어가 주변 지역을 대표하는 공통어(표준어)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공통어(표준어)란 지방의 방언화자나 도시의 방언화자에게나 대체로 문화적 중심지의 사용어를 모방하고자 하는 일종의 언어 우세형(prestige form)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래서 공통어화(표준어화)는 학교 교육의 정책이나 사회적 주류의 매스미디어가 기층 방언에 영향을 끼쳐서 특별한 방향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그 변화 방향은 주로 공통어화로의 경향성이 매우 높다.

일본의 쓰루오카시(鶴岡市)를 1950년부터 2011년까지 20년의 격년으로 4차례 실제시간(real time)을 조사하고, 연구한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다음 <그림 1>은 1950년부터 각 20년을 경과한 1971년, 1991년, 2011년에 쓰루오카(鶴岡)를 조사한 결과, 까마귀(烏, からす)의 발음에 대한 액센트의 공통어화 추이인데, 거의 전 세대가 2011년에는 공통어의 액센트로 바뀐 사실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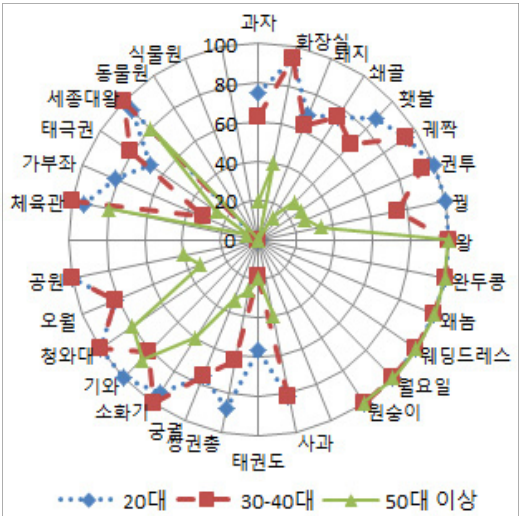


〈그림 1〉 쓰루오카(鶴岡)에서 1950년-2011년 세대별 액센트의 공통어화 비율

다음 <그림 2>는 1950년-2011년까지 35개 공통어에 대한 반응 비율을 조사 결과이다. 그래프를 보면 공통어의 35개 항목에 대한 쓰루오카(鶴岡) 지역의 주민들의 공통어 이해 혹은 사용 비율을 분석한 결과 2011년에는 거의 35개 대부분 공통어에 반응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 쓰루오카(鶴岡)에서 1950년-2011년 35개  
공통어에 대한 반응 추이



<그림 3> w계 이중모음 음절별 실현 양상(이철희  
2017:77)

이철희(2017: 77-78)는 대구 지역어에서 w계 이중모음이 단모음화로 변화하는 정도를 조사하여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대구 지역어의 특징은 보통 어두음절의 초성에 자음이 수반되는 경우 거의 대부분 단모음으로 발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다음 <그림 3>은 표준어에서 w계 이중모음이 실현되는 29개 단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대구 지역어에서 w계 이중모음이 단모음화되는 경향은 세대별 차이가 나타나는데, <그림 3>을 살펴보면 젊은 세대일수록 표준어에 가까운 이중모음으로 발화하는 경향이 점점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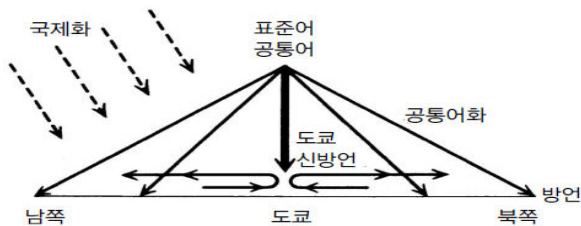
이러한 표준어화로의 추이는 단순한 표면적인 언어 변화 현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 공통어를 받아들이는 화자들은 우세한 문화에 기울어지는 심리적 선택의 결과로 보인다. 즉 문화적 요인이 사용어 변화에 영향을 끼친 경우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공통어화로의 변화 분석은 지역민의 방언과 공통어에 대한 언어태도를 조사하고 이를 분석할 경우에 문화방언학적인 연구가 성립될 수 있다.

### 3) 신방언 발생의 조건 및 변화 분석

신방언이란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앞선 세대에서 사용하는 말과 다르고, 현재 언어 사회의 공통어형(표준어형)이라고 하는 형태와도 다르며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사용하는 새롭게 형성된 방언형을 말한다(김덕호 2018: 187). 대도시에 거주하는 젊은 사람들은 주변 지역의 방언을 아주 신선한 신조어처럼 받아들이고, 이러한 방언에서 기원한 변이형을 마치 차별화된 문화적 선택으로 여기게 되면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표지로 사용하면서 주변 지역 방언과는 다른 독특한 형태의 방언 변이형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신방언의 발생 조건은 젊은 세대의 언어문화적인 차별화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신방언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변화를 주도하는 젊은 세대의 언어문화적 태도를 심층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젊은 세대의 사용어에 대한 경향성을 질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신방언을 주장한 대표적인 연구자로 일본의 이노우에 후미오(2011, 2015)가 있고, 그가 연구한 도쿄 신방언을 들 수 있다. 이노우에 후미오는 도쿄 중심과 주변 지역의 방언 추이 과정을 <그림 4>와 같은 우산형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 도쿄 신방언의 생성과 전파 원리는 도쿄에 인접한 지방에서 도쿄로 그 지방의 방언형이 전파되고, 이렇게 유입된 방언형이 도쿄에 거주하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사용된다. 그리고 다시 지방의 젊은 세대에게 공통어가 아니라는 생각을 유지한 채로 마치 새로운(변형된) 방언형이라고 인식하면서 역으로 전파된다는 것이다. 이노우에 후미오(2015: 221)는 신방언의 성립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우선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가, 다음으로 사용자 스스로 방언으로 취급하고 있는가, 그리고 공통어로는 인식하고 있지 않는가이다.



<그림 4> 이노우에 후미오(2015: 310)의 도쿄 지역 중심 언어 변화의 우산형 모델

이노우에 후미오(2015: 221)는 일본의 젊은 세대에서 대체로 친구들끼리 비표준어형으로 말하는 사용어인데, ‘알지 못한다’란 뜻을 가진 ‘와카라나이(わからない)’를 ‘와칸나이(わかんない)’로 음운을 축약하는 경우도 있고, ‘볼 수 있다’란 뜻의 ‘미라레루(みられる)’에서 음운을 탈락시킨 ‘미레루(みれる)’와 새로운 말투인 ‘우쟈타이(うざったい; 성가시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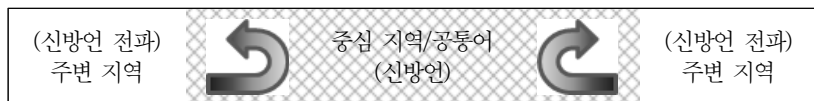
과 같은 예를 들고 있다.

카렌 리사거(K. Risagar, 2006)는 언어와 문화에 대한 몇 가지 연구 방법을 소개한다. 언어와 문화가 분리될 수 없다는 근거에서 언어와 문화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시학적 관점이 있다. 즉 언어와 문화를 분리시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 ‘언문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분석적 논의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시학적 관점이란 서로 다른 문화가 특정 언어의 음성 구조와 음절 체계의 조작을 통해 특별한 문화적 의미를 내포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sup>8)</sup>

앞서 문화적 방언(Cultural Dialect)을 설정한 페트로스카(E. Petroska 1998)는 북마케도니아 공화국의 수도 스코피에(Skopje)에서 젊은 세대들이 발화하는 변형된 구어체 마케도니아어를 문화적 방언(Cultural Dialect)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페트로스카(E. Petroska)가 주장한 문화적 방언이란 수도의 표준어 구어체가 지역어 영향을 받아서 변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젊은 세대의 문화적 방언은 표준 마케도니아어의 구어적 변종이고, 모두 표준적인 마케도니아어를 기초로 하고 있으며 스코피에 지역 방언의 일부 특징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스코피에의 옛 방언은 마케도니아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스코피에 주변 여러 지역 방언의 영향을 받았다. 즉, 이 지역 젊은 세대의 문화적 방언은 마케도니아 표준어(위세어)로 교육받은 화자들이 사용하는 스코피에 옛 방언의 내적 변형의 결과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페트로스카(E. Petroska 1998)가 말한 스코피에 젊은이들의 문화적 방언은 문화적 요인을 전제로 한 신방언과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된다.

이러한 견해를 바탕으로 신방언의 성립 자질을 다시 정리하자면, 김덕호(2018: 188)에서 제시한 자질값으로 [+ 젊은 세대]와 [+ 방언의식] 및 [-공통어(표준어)]으로 설정하고 있다. 여기에 문화적 토대를 가진 신방언의 성립을 고려한다면 [+ 문화의식]이라는 자질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8) 한국어에서 음절말에 ‘ㅇ’을 넣을 경우, ‘밥 먹었엉?’, ‘사랑행’, ‘과제 다 했엉?’은 특별한 문화적 효과를 주기 위한 표현으로 인식된다.



〈그림 5〉 김덕호(2018: 188)의 신방언 전파도

배혜진(2016: 130-131)은 대구 지역어에서 ‘오>우’의 고모음화로 변화 현상을 신방언의 실현으로 보고 있다. 대구 지역 젊은 세대들이 이러한 고모음화를 선택하는 이유는 바로 문화의식이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서울-경기의 기층방언인 중앙어에서 비롯된 구어적 표준형의 내적 변형으로 ‘드러난 위세(overt prestige)’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드러난 위세의 심리적 바탕이 바로 문화의식이다.

## 2. 거시적 연구 방안

거시적 연구 방안은 특정 방언 공동체가 방언의 사용 영역과 분포 및 방언 접촉과 전파의 관계에서 언어 외적인 사회적, 문화적, 상황적 전제와 맥락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가에 관심을 두고 연구하는 분야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거시적 연구 방안은 기층문화권에 의한 방언 분포의 비교 분석과 문화적 접촉으로 본 방언 변화 분석 및 방언주권론에 의한 방언 분포와 확산 분석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 1) 기층문화권에 의한 방언 분포의 비교 분석

이것은 방언의 분포를 규명하는데 문화인류학의 기층문화권과 비교 연구를 전제로 한 분석법이다. 김덕호(2012: 297-298)는 언어(방언) 분포가 문화 현상의 연대를 고증하는 데 논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즉 문화 현상과 언어(방언)의 분포가 관련성이 있다고 본다면 문화 현상의 상대적 연대를 추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추정해 낸 연대의 정확성을 판단하는 것은 특별한 조건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 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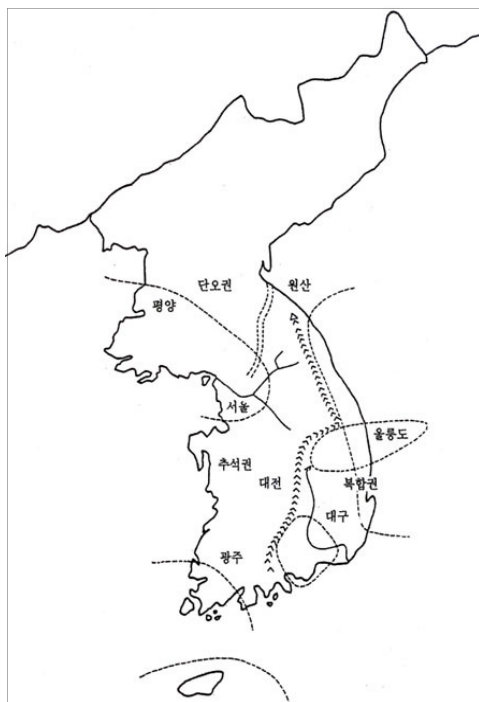
(방언)는 이것을 근거로 문화 현상을 해명할 수 있는 누적된 기층(stratified matrix)을 제공할 수 있다.<sup>9)</sup> 김덕호(2012)는 언어(방언) 분포의 변화를 문화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았다. 방언 분포의 변화를 보다 넓은(거시적) 배경 속에서 관찰하는 일은 방언이 역동적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확실한 논거가 된다. 지역에 따라 방언의 분포 양상이 달라지고 방언 간에 친소관계가 다시 설정되는 변화가 발생한다. 이것을 단순한 언어적 체계의 변화로만 보던 기존의 관점에서 더 거시적으로 잡아서, 지역의 문화적 현상까지 함께 살피는 일은 지금까지 비교적 단선적으로 이루어진 방언학 분야의 연구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시도이다. 그것은 언어(방언) 분포와 변화를 단선언어학이나 일방적인 문화학의 잣대만으로 해석하는 편협함에 빠지지 않고, 다차원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하므로 언어(방언) 분포와 변화에 대한 이유를 복합적인 관점으로 분석하는데 유리하다.

김택규(1985: 453)에서 한반도의 문화 분포를 분석한 ‘한국기층문화영역도<그림 6>’에 따르면, 개성에서 원산으로 이르는 추가령대 이북을 단오권으로 보고, 남한강에서 소백산맥 남서부 지역을 추석권으로, 남한강에서 소백산맥 동남부 지역을 복합권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의 한국기층문화론은 선사문화권, 고대문화권, 고대 제의, 예능, 지역 신화, 세시풍속, 민속 신앙, 민속 연희, 민속 유희, 친족 관계, 방언 의식, 통과 의례 등 문화 요소 전반을 폭넓게 고려하여 설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림 7>은 김덕호(2015)가 소창진평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20C초 벼(稻)형 분포를 확인할 수 있는 방언지도를 제작한 것이다. 이 방언지도를 김택규(1985)의 ‘한국기층문화영역도<그림 6>’과 비교한 결과 ‘벼’는 북방문화권에서 비롯되었고, ‘나락’은 남방문화권에서 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반도에는 옛부터 ‘나락’이라는 어형이 미리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이후에 서북방에서 ‘벼’라는 개신형이 들어오면서 점차 남하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언어지도(2008)는 198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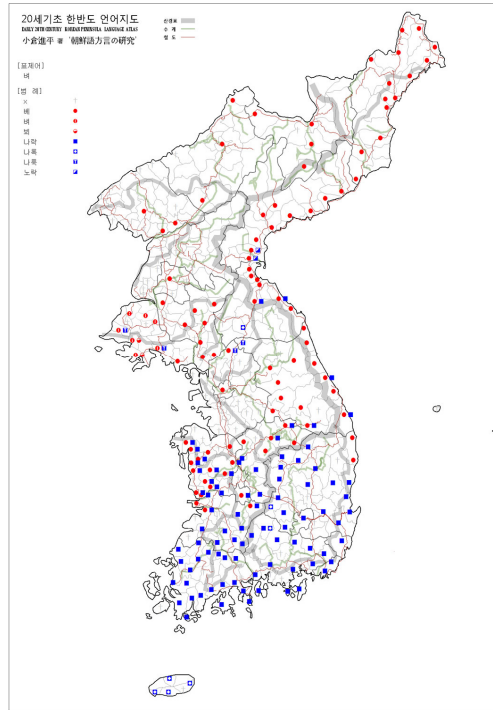
9) E. 사피어(E. Sapir, 1916:51-54)는 언어와 문화 역사에 대한 관계는 고생물학과 지질학의 관계와 같다고 밝힌 바 있다.[나상배(2002:173)에서 재인용]

방언자료를 활용한 남한 지역의 분포 지도이다. 이것도 ‘한국기층문화영역도’와 비교하면 유사한 분포 범위를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나락’형과 ‘벼’형의 세력이 20세기 말까지는 백중세의 균형을 유지한 결과로 판단된다.<sup>10)</sup>



<그림 6> 김택규(1985:453)의  
‘한국기층문화영역도’

10) 『한국방언자료집』을 제작하기 위해 사용된 『방언조사질문지』를 기준으로 보면, 추가 조사 항목을 뺀 경우 1,782항목이고, 추가 조사 항목까지 포함하면 총 2,766개의 방언 자료가 조사되었다. 그렇다면 2008년의 『한국언어지도』는 전체 방언 자료의 5% 남짓 추출하여 153장의 언어지도를 제작한 결과이므로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그림 7> 김덕호(2015)의 ‘20C초 ’벼‘형 언어 분포지도’

이처럼 한반도 방언의 접촉과 분포의 변화를 기층문화영역과 비교하면서 방언의 분포와 변화 추이를 분석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방언지도를 더 심층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다.

김덕호(2012: 315)에서는 김택규(1985: 455)의 한국기층문화영역도를 제시하면서 추석권은 고대국가 시기에 현재 호남 지역인 백제(마한) 지역이었고, 단오권은 고대국가 시기에 현재 북한 지역인 고구려(부여)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추석-단오 복합권은 강원도의 백두대간 부근 남하선을 중심으로 한반도의 동부 해안을 따라서 동남부 지역까지

범위를 잡고 있다. 이것은 고대국가 시기에 신라와 가야 지역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추석권의 주식은 쌀이었으며, 단오권의 주식은 잡곡이었다. 추석-단오 복합권은 쌀과 잡곡을 함께 먹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입각하여 언어문화적 구분에서 벼의 명칭도 추석권은 ‘나락’을 주로 사용했고, 단오권은 ‘벼’를, 추석-단오 복합권에서는 ‘나락’과 ‘벼’를 함께 사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익섭 외(2008: 지도 12,14,16)에서 보여주는 언어지도를 참고하면, ‘벼’의 방언형이 ‘벼-나락-나락’와 ‘벼이삭-나락모가지-나라이삭’과 ‘볍씨-찢나락-신나락’으로 분포된 지역과 대부분 일치한다.

김덕호(2012: 315-316)는 ‘한국기층문화영역도<그림 6>’에서 단오권과 추석권의 분포상 차이는 북쪽이나 남쪽이나 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것을 언어문화적인 측면으로 분석해보면, 단오권은 5월 단오를 일년 중 가장 중요한 행사로 생각하던 권역인데, 봄에 주로 겨울보리를 수확하던 문화권이다. 추석권은 8월 추석을 일년 중 가장 중요한 행사로 여겼던 권역으로 주로 가을에 쌀을 수확하는 문화권이다. 이 두 문화권의 차이는 동북쪽 산악지대의 척박한 땅에서 생산된 잡곡을 주식으로 하던 단오권에서 다양한 종류의 반찬류(김치)를 여유롭게 챙겨 먹는 것은 사치스런 일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소금으로만 금방 간을 한 채소를 간단히 만들어 반찬(김치)으로 먹었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서남쪽의 평야지대인 추석권에서는 기름진 땅에서 풍부한 농산물을 수확하고 좋은 쌀을 주식으로 하면서 다양한 맛을 내는 각종 반찬류를 장만할 만큼 여유가 있었다. 그래서 맛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부재료(젓갈, 양념 등)를 가미하여 맛이 다양한 반찬류(김치)를 만들게 되었고, 다양한 반찬류(김치)를 부르는 명칭도 발달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인지 음식문화의 측면에서 보면 호남지역의 반찬류가 맛있고 종류도 많으면서 또한 명칭도 다양하게 분화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sup>11)</sup>

11) 김덕호(2012: 316)는 다양한 반찬류 중 특히 김치의 명칭이 호남을 중심으로 ‘~+지’라는 다양한 복합어가 발달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지’라는 어휘가 다양하게 사용되면서 정작 처음에 채소를 소금에 절여서 담근 원래 ‘지’류 반찬을 구별

## 2) 문화적 접촉으로 본 방언 변화 분석

방언 분포와 변화를 해석하기 위해 문화적 접촉 관계를 분석하려는 경향이 있다. 방언학자들이 방언의 공간적인 분화와 전파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방언권의 문화 단절과 교섭 현상을 살펴야 한다는 생각은 타당하다. 체임버와 트러트길(Chambers and Trudgill 1980: 120-122)이 프랑스에서 가옥의 지붕 모양의 분화가 북부 프랑스 방언과 남부 프랑스 방언의 경계와 일치된다는 사실을 발견한 사례가 그것을 반증하고 있다. 이익섭(1981: 134,141)은 언어와 문화의 관련 가능성을 언급한 연구에서 한국 강원도 영동방언권의 문화적 분화에서 가옥 구조가 홑집이나 겹집이냐의 차이가 언어의 분화와 대응됨을 지적하면서 이런 가능성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는 언어가 분화되고 변화하는 문제를 언어 자체의 구조적인 압력에서만 찾으려는 연구 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언어(방언)의 분포와 변화를 문화적인 접촉 관계로 볼 때, 고려할만한 기준으로 구분해보면 크게 형태 언어문화권과 인지 언어문화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sup>12)</sup> 형태 언어문화권의 주요 요소는 언어, 종교, 경제, 사회조직, 주거 형태 등을 들 수 있는데, 친족 간의 관계 명칭이나 토지나 물건의 단위 명칭, 촌락의 구조와 통혼권, 통학권, 경제권(전통 시장) 등을 방언 분포와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이런 부분을 고려하는 것이다. 또한 인지 언어문화권의 주요 요소는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인 의식 등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주민들의 소속감과 지역 의식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즉 방언의 분포와 변화를 분석하는데 이러한 심리적이고 의식적인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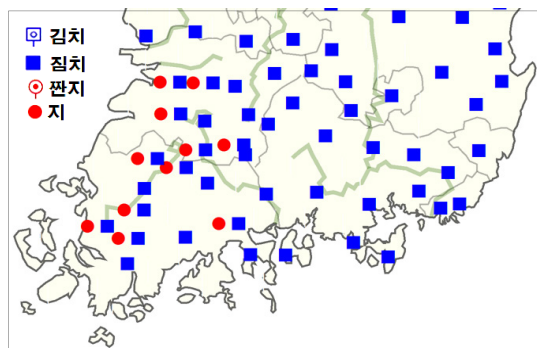
---

할 필요성이 생겼고, 만드는 방법의 한 과정에서 따온 ‘침채(沈菜)’를 사용하여 현대어의 ‘김치>김치’형이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도 최초의 채소 절임 음식을 지칭하던 ‘지’형을 사용하는 곳은 한반도의 서남 지역이고, 그러한 역사적, 문화적인 뿌리가 깊은 만큼 아직도 절임 반찬류의 명칭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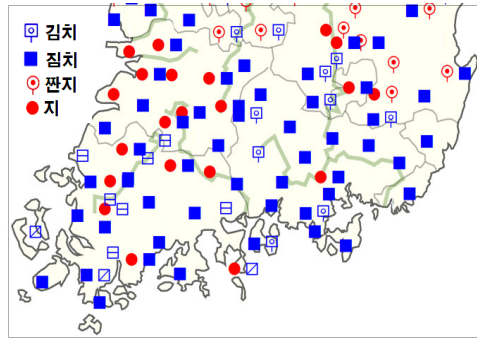
12) 테리조든-비치코프·모나 도모시(류제현 편역 2002: 19-22)에서 문화지역을 형태 문화 지역(formal cultural region)과 인지 문화 지역(perceptual cultural region)으로 구분하고 있다.

라보브(Labov)의 ‘숨은 위세, 숨겨진 위세(covert prestige)’는 겉으로는 드러내 놓고 지역 방언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무의식적으로 표준형보다는 방언을 더 선호하는 심리를 말한다(이익섭 1994: 122). 이러한 심리에서 비롯된 방언 분포 변화의 특징은 인지 언어문화권의 요소를 고려하여 문화적인 접촉 관계를 검증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김덕호(2012)에서는 김치 명칭의 분포와 변화에 대한 문화권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있다. 하임스(Hymes)가 지적인 것처럼 언어를 통해 문화의 흐름을 규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문화 지표는 언어의 분포와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도 있다는 말로 이해된다. 김덕호(2012: 287-288)에서 ‘김치’ 명칭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한반도에서 가장 보편적인 음식이면서 역사적으로도 동북아 3국에 유사한 절임 음식 문화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것은 동북아 각 나라 별에서 ‘저(菹,jiu-중국)’, ‘지물(漬物,つけもの-일본)’, ‘김치(沈菜,딤치-한국)’로 각각 불리는 명칭들의 분포 변화는 한반도 밖으로는 외래문화 전파의 흐름을 규명할 수 있고, 한반도 안에서도 음식 문화의 전파 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림 8> 소창진평(1920년대) 김치분포도(김덕호 2012: 312)



<그림 9> 한국학중앙연구원(1980년대)  
김치분포도(김덕호 2012: 312)

<그림 8>에서 ‘지’ 방언형의 분포 지역으로 20세기 초반(1920년대)에는 한반도의 서남 지역인 전남과 전북의 남부 지역이고, <그림 9>는 20세기 후반(1980년대)에는 전남, 전북과 더불어 경남의 마산, 창원과 경북의 대구, 구미까지 전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sup>13)</sup> 20세기 초반 소창진평이 한반도에서 김치 명칭의 분포를 조사한 이후 거의 60여 년이 지난 뒤에 호남에서 김치를 ‘지’라고 하는 개신파가 영남까지 확장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지’가 특별히 젓갈을 사용해서 양념을 한 김치 문화를 지칭했다는 근거를 적용한다면<sup>14)</sup> 젓갈을 사용하여 김치를 다양하게 담그는 호남의 김치 문화가 전파되면서 생겨난 명칭의 확산으로 분석할 수 있다. 즉 이러한 김치 문화는 젓갈의 주원료인 해산물이 풍부

- 
- 13) 대구 지역의 화자들에게 ‘묵은지’라는 표현이 많이 전파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묵은 김치’를 뜻하는 표현으로 ‘지’가 ‘김치’로 대응된다. 김덕호(2012: 291)는 ‘지’의 경우 ‘디히’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면서, 《杜詩諺解》에서 ‘겨쑈 디히’(冬蒞)로 처음 나타난 다음 여러 문헌에서는 ‘장애틀디히’(醬瓜兒), 준디히, 외디히, 무디히’ 등으로 발견되고, 그 다음에 구개음화를 겪고 ‘지이’로 변환 뒤에 단모음화되어 ‘지’가 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 14) 김용갑(1998:173)은 전남에서 김치를 ‘지’라고 한다고 했다. 호남 지역의 ‘지(김치)’는 다른 지역에서 주로 가미하는 ‘새우젓, 멸치젓’ 외에도 ‘소라젓, 갈치백젓, 꼴뚜기젓 등’과 같은 다양한 젓갈을 첨가하여 만든다고 밝히고 있다.

한 강이나 바닷가에서 자연스럽게 발달했고, 강과 해안을 따라서 이러한 김치 문화가 영남으로 전파되면서, ‘지’류 방언형도 함께 확산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980년대 언어지도를 보면 영남에서도 낙동강을 접하고 있는 지역에서 주로 이러한 ‘-지’류 방언형이 발견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문화적 접촉에 의해 방언형 분포가 확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이다.

또 다른 음식 문화 중에 ‘식혜’형의 경우 경북과 충북에서 방언형 ‘감주’형과 ‘단술’형이 통용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박지수·김덕호(2017: 345-346)에서 상주 지역의 방언 변화는 1980년대에 ‘감주’로 조사된 방언형이 2000년대에 조사된 결과를 보면 ‘감주, 단술, 숙(식)혜’와 같은 몇 가지 방언형이 함께 확인되었다. 즉 1980년대의 방언형이 20여 년이 지난 뒤, 방언 분포의 변화가 발생한 것이다. 1980년대 상주 지역에서 조사된 ‘감주’형에다가 20여 년 뒤에는 ‘단술’형과 ‘식혜’형이 함께 조사되면서 방언 분포의 전파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말하자면 상주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인 경북 문경과 의성 및 충북 보은과 옥천과 영동에서 1980년대에 조사된 방언형들이 2000년대에 상주 지역으로 전파되면서 방언 분포가 변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영동에서 제사 때 음식 문화와 결부된 ‘식혜’형은 상주에서는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있는 점을 보아서 제사 문화는 전파되지 않고 명칭만 전파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38> 1980년대-2010년대 상주 방언의 ‘식혜’ 명칭에 대한 변화 과정과 인접 방언형 비교표(김덕호 2017: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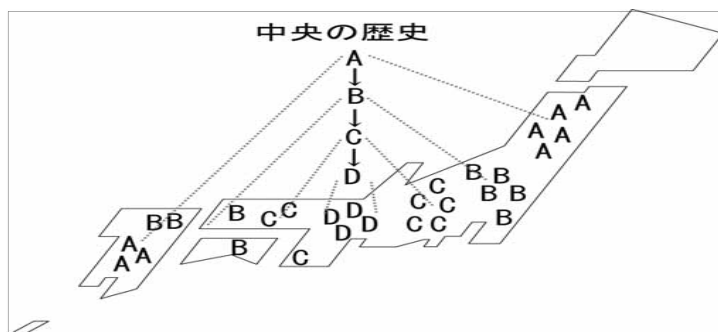
표준어	경북	1980년대 상주			2010년대 상주	
		감주			감주>단술>숙(식)혜	
식혜	북	문경 (‘80년대)	예천 (‘80년대)	의성 (‘80년대)	구미(선산) (‘80년대)	김천(금릉) (‘80년대)
		단술>감주	감주	감주>단술	감주	식혜
	충북	괴산 (‘80년대)	보은 (‘80년대)	옥천 (‘80년대)	영동 (‘80년대)	
		감주	단술>감주	단술>감주>식혜	단술>식혜(제사 때)	

### 3) 방언주권론에 의한 방언 분포와 확산 분석

20세기 초반에 일본의 민속학자로 야나기다 구니오(柳田国男, 1930)가 처음 언급한 方言周圍論(Surrounding-zones dialect theory)은 방언의 분포와 변화 과정에 대한 지리언어학적 분석 방법론 중에 하나이다. 이것은 위세 지역과 같은 중심지(통상 수도권임)에서 비롯된 개신파가 주변 지역을 향해 점진적으로 전파된다는 파동설(wave theory)과 비슷한 원리로 볼 수 있다. 다만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가 초점지역(core area)이 되고, 주변의 지역으로 개신파가 퍼져 나간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방언 분포의 점진적 변화는 언어의 사적 변천 과정을 추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세적 문화의 확산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사고법은 다음 <그림 11>처럼 문화적 중심지에서 출발한 개신형인 D가 인접 지역으로 퍼져 나가면서, 결국은 고형인 A의 영역을 크게 둘로 나누는 양상을 보이게 되고 초점지역에서 멀수록 옛 어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원리이다. 즉, 시간적으로 언어의 사적 변천을 고려하면 A(고형)>B>C>D(신형)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공간적으로 볼 때 ‘A-B-C-D(문화의 중심)-C-B-A’처럼 지리적인 분포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론이다(김덕호 2017: 17-18).

이러한 방언주권론의 변화 과정을 문화적 추이로 분석한다면 신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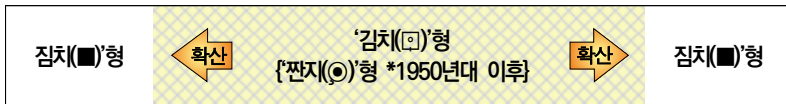
가 구문화를 포섭하여 흡수하거나, 대결하여 배제하는 양상을 방언형의 분포와 변화 과정을 통해 분석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림 11> 야나기타 쿠니오(柳田国男, 1930) ‘방언주권론’의 사고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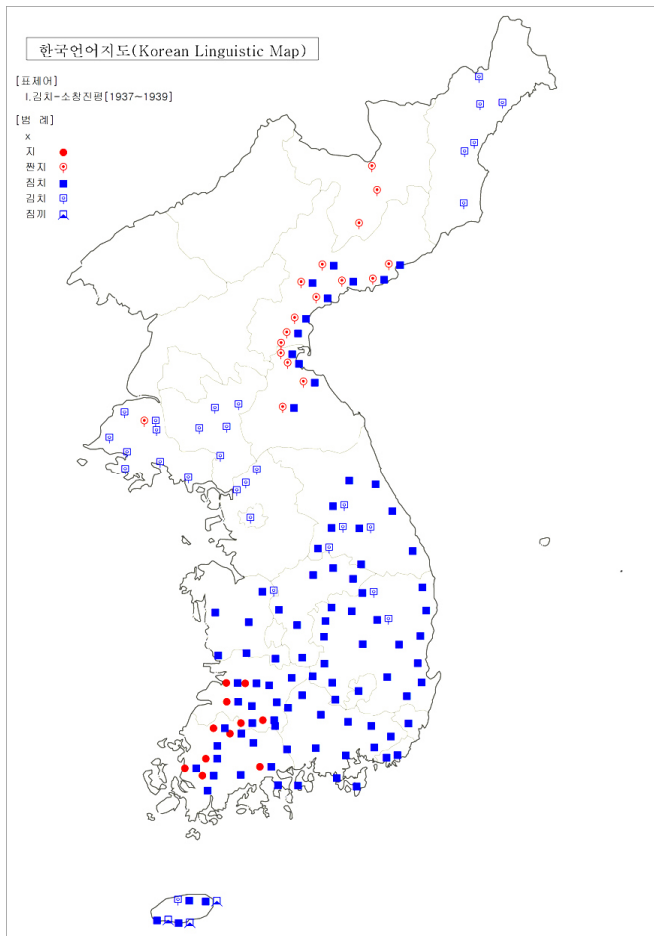
민속학자인 야나기타 구니오(柳田国男)는 ‘카규코(蝸牛考)’(1930)를 출판하면서 방언의 분포의 변화에 대한 연구를 제안했다. 이러한 분포의 경우 달팽이(蝸牛)의 각 지역 방언형이 역사적으로 교토(옛 수도)에서 개신형이 순차적으로 퍼져나가게 되고 주변 지역의 옛 방언형들을 점차적으로 밀어내면서 개신형으로 대체한다는 것이다. 방언 분포는 중앙에서 생긴 언어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방언의 분포와 변화를 파악하게 되면 중앙어의 역사를 단계적으로 재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점이 바로 방언주권론이 제공하는 매력으로 시간과 공간을 다른 차원으로 연결하라는 논리이다. 김덕호(2017: 17)는 이러한 매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분석하면 되는지 그리고 순차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 아닌 불규칙하게 분포가 조사될 경우,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카규코(蝸牛考:달팽이론)’를 ‘방언주권론’으로 해석하는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방언 분포와 변화를 종래의 단선적인 방언학의 연구분석법이 아닌 문화와 역사를 근거로 한 거시적인 연구법을 적용할 경우 그러한 한계도 극복할 수 있음을 김덕호(2012)에서 제시한 바 있다.

김덕호(2012: 324-325)에서 제시한 20세기 초(1920년대) 방언지도 <그림 13>와 20세기 후반(1980년대) 방언지도 <그림 14>를 비교해보면, 고행인 ‘짐치’형이 개신형인 ‘김치’형에 의해 한반도를 남북한으로 양분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개신형인 ‘김치’형이 고행인 ‘짐치’형을 양쪽으로 밀어내는 방언주권론의 원리와 비슷한 분포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분포의 추이를 방언주권론의 원리에 입각해서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1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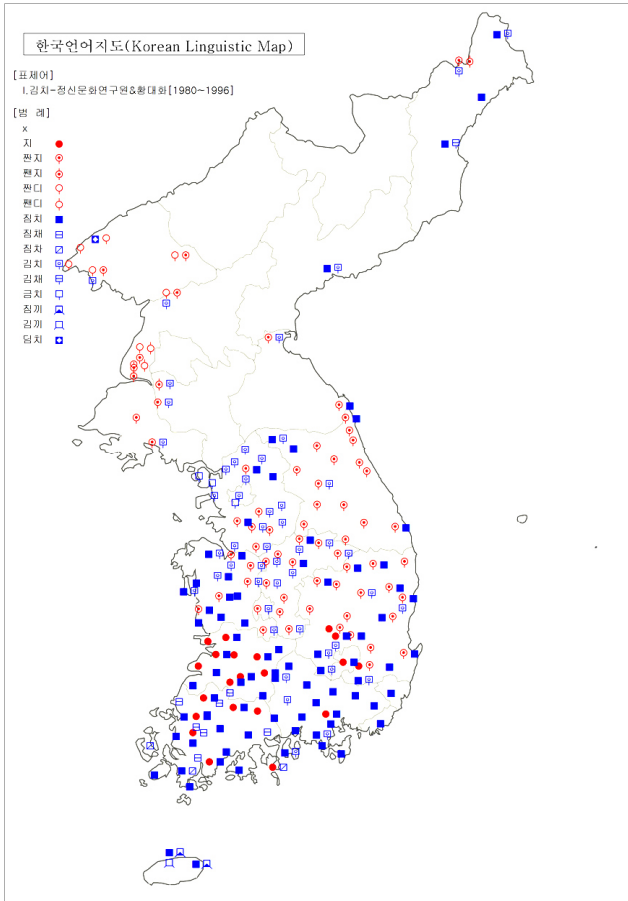


<그림 12> 한반도 ‘김치’형의 방언주권론(김덕호 2012: 310)

또한 20세기 초에 주로 함경도 해안 지역에서 발견되었던 ‘짬지’형은 20세기 말의 방언지도 <그림 14>에서는 넓은 영역의 남쪽으로 전파되면서 ‘짐치’형의 중심지를 점유하고 있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한반도 전쟁으로 인한 급속한 확산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림 13> 20세기 초(1910년대)의 ‘김치’형 언어지도



<그림 14> 20세기 후반(1980년대)의 ‘김치’형 언어지도

또한 ‘김치’형의 방언주권론 원리와 다르게 분포된 지역이 있다. 20세기 초 김치형의 방언지도인 <그림 13>를 보면 한반도의 동북부지역(함북 육진)에서 개신어형인 ‘김치’형이 발견된다.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유배지였고, 서울 중심어를 사용하던 유배인들을 강제로 이주시키면서 중앙어인 ‘김치’형이 분포하게 된 것이라 판단한다. 소위 강제적으로 이루

어진 개신어형의 ‘건너뛰기 확산’에 의한 전파로 분석하고 있다. 이처럼 방언주권론을 단순한 방언의 순차적 전파로 보면 분석의 한계에 봉착할 수 있으므로 거시적 연구의 관점(문화, 역사 등)을 분석 방법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 V. 맺음말

방언 분포와 변화에서 주로 언어의 사적 변천 과정을 찾아내려고만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목적을 특정화시킨 결과로 보인다. 오히려 방언의 분포와 변화는 그 배경에 존재하는 다양한 지리적, 사회적, 문화적 정보와 얽혀 있는 복잡한 근거와 체제가 있다고 인식해야만 할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언어지리학 연구 분야가 언어의 사적 변천을 해명하기 위한 연구로만 그 의미를 한정하기에는 아쉬운 점이 많다. 그런 까닭에 언어지리학은 특정의 목적에 초점을 둔 분야가 아니라 언어와 지리적인 공간의 관계, 언어와 사회적인 현상과의 관련, 언어와 문화적인 기반과의 연결을 염두에 두면서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인간의 존재 의미를 좀 더 심층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 연구 분야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관점을 열어두고 다양한 연구 방법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방언학 연구 분야에서 문화방언학(Cultural Dialectology)이란 확장적이고 통섭학문적인 연구 분야의 설정을 시도하고자 했다. 이 분야는 방언의 분포나 변화에 대해 언어심리학적인 관점이나 문화인류학적 전제를 근거로 하여 분석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전통적 기층 문화권이나 지역민의 문화적 판단(문화 의식, 문화 지각, 문화 직관)을 근거로 하여 방언 분포나 변화의 양상을 분석할 수 있다. 이 분야는 사회방언학의 양적 연구 방법과 아울러 문화론의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는 분야이다. 기존의 방언학 연구에서 방언의식과 표준어화 및 신방언 분석이나 더욱 확장된 기층문화권과의 대조 분

석과 방언 분포와 변화의 문화적 접촉 과정 분석 등이 세부 연구 분야로 설정될 수 있다.

인간의 심리와 사고방식의 형성에 주로 작용하는 것이 문화라고 설정하면서 문화만큼이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이 바로 언어란 점도 고려해야 한다. 언어의 위세형(*prestige form*)을 선택하려는 심리는 해당 문화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경우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시적 연구 방안은 언어의 내적인 선택과 맥락을 전제로 연구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 분야의 경우는 언어 이데올로기에 따른 방언 수용 여부와 공통어화(표준어화)로의 변화 분석 및 신방언 발생의 조건 및 변화 분석을 미시적 연구 방안으로 설정하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거시적 연구 방안은 특정 방언 공동체가 방언의 사용 영역과 분포 및 방언 접촉과 전파의 관계에서 언어 외적인 사회적, 문화적, 상황적 전제와 맥락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가에 관심을 두고 연구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거시적 연구 방안은 기층문화권에 의한 방언 분포의 비교 분석과 문화적 접촉으로 본 방언 변화 분석 및 방언주권론에 의한 방언 분포와 확산 분석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필자는 본 연구를 통해 방언학 연구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가능성은 타진해 보았다. 그리고 본 연구는 그러한 지평을 확장하려는 작은 노력에 불과한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이러한 제안에 의해 방언학 연구 분야를 더욱 넓힐 수 있는 많은 연구들이 이어지기를 바란다.

※ 이 논문은 2020년 11월 1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0년 11월 19일부터 12월 3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0년 12월 4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 참고문헌

- 강우원, 「경남 방언의 부름말 실현 양상과 문화적 특성」, 『언어과학』 15-2, 한국언어과학회, 2008, 1-20쪽.
- 강현석 외, 『사회언어학: 언어와 사회, 그리고 문화』, 글로벌콘텐츠, 2014.
- 고영근, 「方言境界에 대하여」, 『한국문화인류학』 2권, 한국문화인류학회, 1969, 47-56쪽.
- 고영근, 『우리 언어문화의 뿌리를 찾아서』, 한신문화사, 1996.
- 김덕호, 「한반도 ‘김치’ 명칭의 분포 변화에 대한 연구」, 『방언학』 제16호, 2012, 287-326쪽.
- 김덕호, 「문화어문학: 언어문화 연구를 위한 질적 연구 방법의 모색」, 『어문론총』 61호, 한국문화언어학회, 2014, 9-44쪽.
- 김덕호, 「한일 방언 경관의 분석과 방언 태도의 상관성」, 『일본학』 40집, 동국대 일본학연구소, 2015, 51-84쪽.
- 김덕호, 『20세기 초 한반도 언어지도 제작과 활용 방안 연구 보고서』, 한국연구재단, 2015.
- 김덕호, 「방언 분포의 변화 과정에 대한 지리, 사회, 문화적 분석 방안」, 『2015년 한국사회언어학회, 담화인지언어학회,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공동학술대회 발표서』, 2015.
- 김덕호, 「방언 분화의 변화 과정에 대한 분석 방안 연구1: 지리언어학적 방법론을 중심으로」, 『사회언어학』 25-1, 한국사회언어학회, 2017, 1-26쪽.
- 김덕호, 「방언 분포의 변화에 대한 사회방언학적 연구」, 『방언학』 27, 한국방언학회, 2018, 181-209쪽.
- 김용갑, 『영남과 호남의 문화비교』, 풀빛, 1998.
- 배혜진, 「대구 지역의 신방언 실현 양상 연구-‘오→우’ 고모음화를 중심으로」, 『방언학』 24, 한국방언학회, 2016, 129-152쪽.
- 이익섭, 『영동, 영서의 언어분화: 강원도의 언어지리학』, 서울대출판부, 1988.
- 김택규, 『한국 농경 세시의 연구-농경의례의 문화인류학적 고찰』, 영남대 출판부, 1985.

- 박지수, 김덕호, 「경북 상주 지역의 언어변화 과정에 대한 연구」, 『한민족어문학』 69, 한민족어문학회, 2015, 317-357쪽.
- 성기철, 「언어와 문화의 접촉」, 『한국언어문화학』 1-1,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04, 105-123쪽.
- 성기철, 「언어문화의 보편성과 개별성」, 『한국언어문화학』 1-2,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04, 131-149쪽.
- 이성준 「홈볼트 언어관의 핵심문제에 대한 고찰」, 『한국학연구』 제10집,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1998, 455-483쪽.
- 이익섭, 『영동 영서의 언어분화-강원도의 언어지리학』, 서울대 출판부, 1981.
- 이익섭, 『사회언어학』, 민음사, 1994.
- 이익섭·전광현·이광호·이병근·최명옥, 『한국언어지도』, 태학사, 2008.
- 이철희, 『대구 지역어의 모음 음운 변화에 대한 사회방언학적 연구』, 경북대석사학위논문. 2017.
- 전정례, 『언어와 문화』, 박이정, 1999.
- 태평무, 『언어학과 사회』, 료녕민족출판사, 2000.
- 테리조든-비치코프, 모나도모시「류제현 편역」, 『세계문화지리』, 살림, 2002, 19-22쪽.
- 이노우에 후미오, 『일본어의 시장가치』, 2000.-정혜열 번역, 계명대 통번역학석사학위논문, 2003.
- 마키노세이이치, 『공간의 언어문화학』 1996., 안증환 번역, 제이앤씨, 2001.
- 이익섭 외, 『한국언어지도』, 태학사, 2008.
- 罗常培, 『語言与文化 1950.』, 『언어와 문화』, 서울대 출판부, 2002.
- 游汝傑·周振鶴, 『方言与中国文化 1985.』-전광진, 이연주 공역, 『방언과 중국문화』, 영남대출판부, 2005.
- 胡兆量, 『中國文化地理概述 2005.』, 김태성 역, 『중국의 문화지리를 읽는다.』, (서울)휴머니스트, 2005.
- 孔祥馥, 「青海方言蕴涵的文化意义 Analysis on the Hidden Cultural Meaning of Qinghai Dialect.」, 『Qinghai Shifan Daxue Xuebao』 33-3, Zhexue Shehui Kexue Ban., 2011.
- 吴亮, 「河南方言文化遗产的保护研究 Research on the Protection of Henan Dialect Cultural Heritage.」, 『西華大學學報』 4호, 哲學社會科學版, 2012.

- 柳田国男, 『蝸牛考:かぎゅうこう』, 刀江書院, 1930.
- 小倉進平, 『朝鮮語方言の研究, 上・下』, 東京:岩波書店, 1944.
- 井上史雄, 『日本語は 年速 1きろで動く』, 講談社現代新書, 2003.
- 井上史雄, 『經濟言語學 論考(2011)』, 明治書院, 김덕호 외 역, 『경제언어학』, 역락. 2015.
- Kang Yoojin, 「Dialect contact and linguistic accommodation: A case study of Standard Seoul Korean speakers in Gyeongsang province」, 『언어과 학연구』 79, 2016, pp1-19.
- Karen Risager, 『Language and culture: Global flows and local complexity』: BOOK REVIEWS, 2006.
- Kramsch C., 『Language and Culture 1996.』, Oxford Univ., Press., 정복명 외 역, 『언어와 문화』, 박이정, 2001.
- Michael Agar, 『Language Shock: Understanding The Culture Of Conversation』, 1996, pp73-88.
- Bloomfield, 『Language』,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1933.
- Chambers & Trudgill, 『Dialectology』, Chambridge Univ., Press. 1980.
- Labov, W., 『Sociolinguistic Patterns』,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72.
- Labov, W., 『Principles of Linguistic Change』, Blackwell. 1994.
- Palmer, L.R. 『An Introduction to Mordern Linguistics』, Macmillan, 1936.
- Sapir, E., 『Language: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Speech』, New York: Harcourt, Brace, 1921, p221.
- Trudgill, P. 『New-Dialect Formation』: The Inevitability of Colonial Englishes. 2004.
- Silverstein, M. 『Language structure and linguistic ideology』, Chicago Linguistic Society, University of Chicago, 1979.
- Woolard, K.A. etc, 「Language Ideologies Practice and Theory」, Oxford Studies in Anthropological Linguistics 16, 1998.
- Koyama Wataru, 「Dialectics of dialect and dialectology: culture, structure and ideology of ‘the Kyôto dialect’ of Japanese」, Journal of Pragmatics 33-10, 2001.

Petroska.E., 「The cultural dialect of the younger generation in Skopje」,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sociology of language 131-1, 1998,  
pp59-72.

두산백과-<https://www.doopedia.co.kr/>.

Abstract

## Searching for Cultural Research Methods on the Distribution and Change of Dialect – Attempt to establish Cultural Dialectology

Kim, Deok-ho

The fact that we are always trying to find the process of language's private transformation in dialect distribution seems to be a result of very specific purposes. Rather, the distribution and change of dialect would have to be perceived as having complex grounds and systems intertwined with the various geographical, social and cultural information present in the background. In this regard, it is regrettable that research in the field of linguistic geography can limit its meaning only to research to explain the historical changes of languag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keep in mind that language geography is not an area focused on a specific purpose, but a field of research that can be analyzed in a more in-depth way to explain the meaning of human existence by keeping in mind the relationship between language and geographical space, the connection between language and social phenomena, and the connection between language and cultural foundations. To do this, it is necessary to open up various perspectives and explore various research methodologies. Only then will the possibility of broadening the horizons of dialectical research be increased. I think this paper is only a humble effort to open up the

possibility of expanding such horizons. However, I hope that this will be a stimulus and that achievements will be made that can further expand the field of dialectology research.

**keywords :**

language culture, cultural dialect, dialect change, dialect distribution, cultural dialectology

